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세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운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교회학교 여름행사 이번주부터 시작

11일(화) 대학부수련회 필두로

2000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주에는 대학부가 11일(화)부터 3박 4일간 경기도 양평에 있는 산음휴양관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주제는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으로 청년의 은사·비전·사역·교회 섬김의 의미에 대한 특강, 자신의 은사와 스타일을 발견하도록 돕는 영적 은사와 네트워크에 관한 세미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와 집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15일(토)에는 소망부의 일일수련회가 교회당에서 개최된다.

각 부서는 여름행사를 통해 주일의 짧은 시간으로는 부족했던 경건훈련과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집중적인 영성훈련의 기회를 갖게 된다.

교회학교의 여름행사는 학생들이 거듭난 인간·성숙한 신자·하나님의 이를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한걸음 성숙하는 계기가 되므로

은 교우들의 기도와 관심이 요청된다.

각 부서 여름행사의 감사, 실시일, 장소 및 주제는 4면의 <표>와 같다.

한편 교회학교는 학생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영어 성경반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부터 동시통역예배

새 예배당시대를 준비하면서 예배 시 영어 동시통역이 9월부터 실시된다. 또 교회학교에서는 영어성경반 개설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영어 동시 통역이 실시되는 예배는 주일 11시 2부예배로 9월 첫 주부터 시작된다. 동시통역은 손영준 목사가 담당한다. 손목사는 서울대, 미국 웨스트민스트신학교, 개혁신학교에서 수학했으며 남아프리카 포체스트룸대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 정통 장로교회 선교사로 MII(선교사훈련원) 원장으로 사역중이다.

이에 따라 교회는 새 예배당 시대를 앞두고 많은 외국인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하고있다.

사람을 찾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서울교회 사무국 (517-7651)으로 연락바랍니다.

1. 홍보실

- ①. 컴퓨터 편집이 가능한 분
- ②. 교회 주간 신문 <순례자>의 제작(취재, 편집 포함)이 가능한 분
- ③. 홍보물 제작 능력이 있는 분
- ④. 세계 교인으로 교회 봉사에 사명감이 있는 분

2. 동시통역요원

영어, 일어, 중국어로 예배 동시통역 가능한 분

쉽에 대해 성경은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 가운데서 안식을 선포하시고 안식일을 제정 하심으로 이 쉬(안식)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성의 한 부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의 완전함(살림의 상태)을 안식(살림, 평안)으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얻게 된 것이다(창2:2-3, 출

20:11). 따라서 쉬는 개인적 덕목을 초월하여 신앙공동체 전체가 합의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중요한 신앙의 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쉬는 쾌락이 아닌 평안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예배, 묵상과 기도,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약속된 것으로 인격적 관계의 결실이 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이다.

한편 그리스도인은 쉬에 대한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평안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쉬를 누리라는 모범을 실제적으로 교훈하셨다(막6:31). 이어

야 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시 121:4)과 안식일에 더 적극적으로 일하신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역동적인 평안과 조화를 이루는 기독교적 쉬의 문화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일과 쉬, 행위와 놀이, 활동과 정지 등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적인 활동 속에서 참된 평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위에 제시한 평안, 공동체적 균형, 역동성의 지향 등 이러한 몇 가지 쉬에 대한 성경적 전제 하에서 그리스도인의 휴가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다.

휴가철, 참된 평화와 희생적 사랑의 관계성의 기반 하에서 다양한 휴가 아이템을 개발하고 풍성하면서도 균형잡힌 휴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우리가 되자.



그리스도인의 쉬과 휴가문화

이상진(목사, 사랑부 지도)

예수님은 큰 무리의 목자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은 충분히 쉬지 못하셨으나 더 크고 절실한 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쉬를 포기하시고 군중을 위해 기꺼이 일하셨다(막6:32-44). 나 혼자만 편히 쉬면 된다는 쉬에 대한 이기심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쉬의 문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쉬에는 역동성이 있어

에베소서 4장 11-16절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중운 목사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른 직임으로 부르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와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 분량에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란 사람이 성숙한 신자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1.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각각으로 두지 말고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맺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16절).

에베소서 2장 4-5절에는 일곱 가지로 성도가 하나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하며 이와 같은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연합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21세기의 지도자는 연합하고 단결시키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며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것입니다(13절). 본문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앞으로 얻어져야 할 일치를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교회가 영적 성숙을 이루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3절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인적 응답이며 아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믿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내용, 곧 믿음의 도를 말한다면 아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얻어진 그리스도의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적 신앙 내용이나 그를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에서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함께 나오는 것이며 이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숙하게 자라고, 성숙하게 자란 사람은 연합하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에 서너 개의 교회들이 함께 있다면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서라도 교회는 연합해야 하며 개교회들도 각각 연합해야

합니다.

2.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란다는 것(15절)은 그리스도의 체험적 지식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게 됩니다.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갈 5:22 이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른 성숙한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 각자가 성장해 나가야 할 방향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어두움의 자식들이 살고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든 개 교회들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성숙한 성품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3. 영적 성숙은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14절). 어린 아이는 한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오래 놀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찾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린 아이는 잘 속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린 아이 속성은 성숙하지 못한 성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주님의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언급할 때 분명하게 성숙한 신자를 요구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사랑 안에 있어야 하며 성숙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진리로 행동할 것을 말씀합니다(15절). 진리 없이는 교회가 교회일 수 없고, 사랑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빛을 받은 제가 서울교회 사
라 여전도회와 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안
과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금년 4월 27일에는 전남 노회로부터
현재 사역 중인 청풍은성교회에 임시 목사로
청빙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준비
시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심에 하
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 교회는 시골 벽지의 작은 교
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
습니다. 그러나 이웃 교회의 격려와
서울교회의 도움으로 물질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생각지도 못했
던 서울교회 사라전도회의 기도 후원은 이곳
교회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
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벽지 교회의 이름없는

젊은 목회자의 안수를 기억하고 기도해주시
고 축하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에 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드릴 것은 그동안 저희 교
회가 차량이 없어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이 2-3km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다니시느라

식 12인승 그레이스승합차를 제공해주셨습
니다. 지난 주에는 그 차로 성도님들을 모셨
는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필요를 채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저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월 2회 정도
30분 거리에 있는 도곡 온천에서 목욕을 시
켜드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농촌 가옥은 그 구조 상 목욕
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성도들의
신앙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웃들
도 전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런 영적인 교제
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예수 앞에 영생, 사람 앞에 덕을
이룰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후원교회에서 온 편지

기도 후원에 힘입어

이호근(청풍은성교회 목사)

힘들어 하는 모습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승합차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소망했는
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입할 형편은 아
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안수를 받은 다
음 날 한 장로님이 어린이 집에서 쓰던 93년

제주도 관광을 다녀와서

김진호(집사, 아브라함선교회 부회장)

지난 달 27일 2박3일간의 제주 여행길에
나섰다. 6월 6일 한가죽 한마음 축제 때 70세
이상 노인 중 특별상으로 받은 여행이었다.
다른 두 부부와 함께 모두들 옛날 초등학교
시절 소풍 가는 심정이었다.

27일 아침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출
발은 오후 5시 50분이었지만 마음이 들떠서
였을까? 구름이 조금 낀 좋은 날씨였다. 제주
공항에 오후 6시 50분 도착, 여행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숙소에 여정을 풀었다.

28일 아침 9시 30분 여행사 직원이 준비한
봉고차를 타고 관광길에 올랐다. 여정에 없는
마라도 관광을 하기로 하고 제주 시가지를 벗
어나 남쪽 마라도행 선착장을 향했다. 10시
발 쾌속정을 타니 불과 30분 만에 마라도에
도착하여 정상에 올랐다. 내려다 보이는 검은
바다는 말없이 한없이 출렁이었다. 정상에서
3륜차를 타고 마라도 등대를 돌아보고 대한
민국 최남단 석비가 세워진 곳에서 사진을 찍
었다. 12시 제주도로 다시 돌아오는 쾌속정
에 몸을 실었다. 아름다운 자연, 고운 심성, 너
덕한 여유, 진한 삶의 향기를 담고 하나님
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되찾는 여행길이라고
생각했다.

점심 식사를 끝내고 우리는 천지연 폭포를
구경하고 시내 여러 곳을 돌아보았다. 잘 정
돈 되어 깨끗한 시내는 열대 식물이 많고 공
간이 여유 있어 화와이를 연상시켰다.

29일은 돌아오는 날이었다. 아침 일찍 짐

을 챙기곤 9시 30분 다시 어제 그 봉고차를
타고 관광길에 올랐다. 먼저 삼성 일출봉을
찾았다. 우리 일행은 해안 도로를 따라 삼금
부리 관광에서 정상에 올라 기념 사진을 찍
고 하산하여 만장굴로 떠났다. 삼금부리는 관
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 복잡했다. 만장굴에
서는 나만 빼고 모두들 관광에 나섰다. 20분
후 일행이 돌아왔다. 모두들 입구만 보고 왔
다고 했다.

마지막 여정인 용두암을 보고 나니 일정이
모두 끝났다. 시간 여유가 있어 우리는 제주
도 수목원에 갔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수종
이 많다고 했다. 7, 8대의 대형버스가 정차해
있었고 그 주위 나무 밑에 많은 사람들이 휴
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몇 사람이 화장실을 곁에 두고 노
상 방뇨를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우리 삶은
더불어 사는 것인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
었다. 여행이란 먼 길을 떠났다 제자리로 되
 돌아 오는 것일게다.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
니라 새롭게 보는 것이며 일탈한 생활을 바
로 잡는 기회가 아닌가.

수목원을 떠난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제
주 공항에 도착했다. 서울에 도착하니 저녁 8
시 50분이었다.

삶의 교훈을 다시 깨닫는 좋은 기회를 만
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여행길을 지원해 준 서울교회 배려에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답아!

하정자(권사, 7교구)

아답아!

아답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에덴의 첫 아담을 찾으시던

애닦은 음성을 듣는다

협한 가시나무 형틀에

구리 배암으로 못박혀 매어달린

가시 면류관을 쓴 고난의 종

벗기운 수치와 협한 채찍

속건제물로 매어달린 종에게

영혼 깊이 저미는 아픔은 무엇인가

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히도 버림 받은 자의 쓰디쓴 절규가
끌고다 해골 언덕 위에 핏소리처럼 번질 때
실상 그는 천히 구속의 사역을 완성한
마지막 아답이었다

이제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감나무 한 가지에 접붙였으니

유리하던 영혼

얼레질 당하여

유브라데의 감미로운 수액에 거나히 취한다
아! 풍요로운 강 비손에 잠긴다

무지개회 회장 이영희 집사

무지개회는 지난 6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임원진을 구성했다.

회장에는 이영희 집사가 뽑혔으며 총무 박연순 권사 서기 박경희 권사 회계 정경자 집

사가 각각 선출됐다. 무지개회는 우리 교회 당회원 가족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다.

■ 동정 ■

* 박정선 집사(11교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는 7일부터 17일까지 비엔나와 린츠 등

지에서 9차례에 걸쳐 5곡의 작곡 발표회를 갖는다.

- * 이영조 집사(11교구)는 쌍용시멘트 영월 공장에서 서울 본사로 발령받았다.
- * 이번 주 식사는 원복순 권사·이경민·이명웅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호산나찬양대는 10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 모세선교회·한나전도회는 15일(토) 70인 전도대 주력부대로 활동한다.



유아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유아부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습니다. 처음 유아부에 오는 아기들은 대부분 온 가족이 동원되곤 하지요. 엄마, 아빠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에 이모, 삼촌 등...

가족들은 아이가 새로운 선생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고 예배실로 향합니다만 새로 오는 아기들의 엄마들은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이와 함께 유아부에 잔류하곤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예배실로 향하긴 하지만 2층 예배실의 맨 뒷자리에 앉아 온통 유아부 쪽으로 신경을 쓰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듯하면 언제든지 달려나올 준비를 합니다. 혹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2층 유아부실을 애써 외면하고 아기를 안고 예배실로 직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같은 불안감은 예수님께 맡기시고 소중한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유아부 교사 일동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유아부에 안심하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유아부의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유아부의 홈페이지는 자세한 교육 일정은 물론 교육 내용, 아기들의 귀여운 모습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 아기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 애쓰는 여러 선생님들의 모습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보석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 하루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는 모습을 유아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단 유아부의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있게 지켜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보다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유아부 홈페이지(에 찾아 오시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우선 교회 홈페이지(soeulchurch.or.kr)에 접속하셔서 교회학교 중 유아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김시환(집사, 유아부 교사)

■ 새 예배당 소식 ■

새 예배당 건축 현장에서는 7일(금) 새 예배당 7층 바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성됐다. 이제부터는 지하 방수작업과 3층 설비, 7층 전선관을 까는 작업이 계속된다.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는 벽돌을 확정 주문하고 7월 하순부터 벽돌 적재 작업을 2개월 정도 예정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성도들은 계속되는 공사에 사고 없게 하시고 물자와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정교한 기술과 고른 일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의 벽돌을 계속 쌓아가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물질 헌신도 풍성하여 쓰기도 남는 감사가 있도록 기도해 줄 것도 당부하고 있다.

■ 이종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

부서	강사	실시일	장소	주제
유치부	이종운 목사, 최지혜 전도사	7월 21일(금) - 23일(주일)	교회당(유치부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세요
유년부	이종운 목사, 이영희 전도사	7월 21일(금) - 23일(주일)	교회당(유년부실)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초등부	이종운 목사, 신미숙 전도사	7월 21일(금) - 22일(토)	교회당(초등부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중등부	이종운 목사, 용석범 목사	7월 20일(목) - 22일(토)	광림수도원(경기도 광주)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등부	이종운 목사, 이성득 목사	7월 24일(월) - 26일(수)	광림수도원(경기도 광주)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학부	이종운 목사, 정윤돈 목사	7월 11일(화) - 14일(금)	산음휴양림(경기도 가평)	선한 일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
청년부	이종운 목사, 고경선 목사	7월 31일(월) - 8월 3일(목)	산음휴양림(경기도 가평)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부	이종운 목사, 이상진 목사	7월 23일(주일) - 24일(월)	교회당(사랑부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세요
소망부	이종운 목사, 우심화 목사	7월 15일(토)	교회당(소망부실)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수련회를 위해
2.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
3. 새로 시작하게 될 동시통역예배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의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교외외도

